2026-03-01-icsc Core 예배- 녹취록

말씀제목: 흐름을 바꾸는 자
말씀구절: 행 16:6-10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들어가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언약으로 잡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답은 항상 복음이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내한테 계속 복음을 이야기 하면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약속한것을 우리안에 행하신다.
세월이 좀 지나고 보면 많이 바뀌었다. 사람이나 세상도 많이 바뀐다.

이번에도 선교현장에서 나의 복음 이전, 이후를 설명했다.
그전에는 기도응답이 안되서 안한다고 선언했다. 보통일이 아니잖은가..

전도 7-8 년 내가 전도지를 다 쓰다 시피했는데 한 사람도 내 따라오지 않았다.
복음이후에 전도뿐 아니라 영적문제 치유, 귀신도 나가고 제자도 찾고 하는 응답이 온것이다.

복음알기전에 내가 무슨 목사를 하겠다고 생각이나 있었나?
훈련을 받는 중에 복음을 받고 목사가 되었다.

미국, 일본, 필리핀 다니다가 미국으로 오게되었다.
처음에는 입으로 말만 했는데 진짜 남미를 가게 되었다.
만일 진짜 끝까지 간다면, 지금이후에 대를 이어 남미 복음화가 되어진다면,,,

복음은 이렇게 한다. 개인적으로 해보시라 좁게 하지 말고 크게 하라.

요즘 메시지가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라고한다. 잘못생각하면 무슨 우주를 정복하냐고 점도
안찍히는 인간인데,,, 할수 있겠는가? 왜 ? 되겠는가? 복음이니까 된다. 하나님 눈에는 우주 복음
하고 어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는가? 우주는 가치도 없다. 복음은 당신이 오셔서 피로
세우신것이다. 죽으심으로. 그러면 그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복음을 언약으로 잡고 있는
사람은 이미 우주를 정복했다는 믿음이 생긴것이다.

그것을 표현한것이다. 진짜냐? 복음에 대하여서... 그 이야기이다. 그냥 입에만 복음이고
사는것은 육신적이라면 어떻게 우주를 정복하겠는가 지구밖으로 한발짝도 못나가지...

내 한테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내 인생에 흐름을 바꾸신다. 답은 복음이다. 다른게 없다.
세상에서 최고로 힘있는게 복음이다. 전 우주에 그 어떤것도 복음을 이길것이 없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것이다. 현장을 하나 정해놓고 가서 계속 복음을 이야기 해보라. 그러면 그게 박히게 되어있다.

지금 교회에서 이은철목사팀으로 들어가는 일이지만 양로 병원에서 죽음앞에 있는 사람들 바뀌기 힘들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제일 처음 들어갔던 병원은 분위기가 좋아져서 집중을 한다.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공간에 사람들이 꽉찼다고 한다. 다른것 필요없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무조건 말을 하는것이다.

사람이 죽을때가 다 되어가면 얼굴도 눈도 바뀐다 삐뚤어진다 귀신들려가지고,,, 복음 모르는 사람 다 그렇게 된다. 자꾸 복음들으면 얼굴, 눈 다 돌아온다. 틀림없다. 그래서 한곳을 정해놓고 계속 가봐라 증거를 보고 확신을 가질것 아닌가?

모든 전도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변화 하는것을 보려면 한곳을 집중적으로 사각지대에 가서 계속 말해보라. 남미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메시지 듣다가 한번씩 가는것이다. 말씀운동을 하라고 했다. 다른것 필요없다 말씀운동, 그안에 복음있으면 된다.
1)복음을 가진자는 구원을 받는다. 응답도 받고 세상을 살린다. - 되겠나 안되겠나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보아라 문제는 일단 세상 흐름은
2)사단의 흐름이다. 여기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없다. 우리도 받고 있다. 배경이 이렇다.
3)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흐름(증거)이 나타나게 되어있다. 그 증거가 흘러간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이 달라진다.
4)복음은 최고의 가치이다 예사로 생각하면 안된다. 그런데 이것이 발견되기전에는 내 마음대로 절대 안된다. 조금씩 열린다. 왜그런지 조금씩 밖에 안 열리더라. 우리 안에 있는것을 조금씩 확인하라는 뜻도 있겠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날 하나님의 소원하고 통하는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사람이 되어진다.
그냥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도 참 귀하다. 이런 사람은 중단되고 갈등올 가능성이 늘 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발전 발견, 창조적인 것이 잘 안나온다. 지 스스로 아이디어 기도제목이 잘 안나온다. 하나님이 주신 느낌의 기도제목이 잘 안나온다. 왜냐면 하나님과 컨넥션이 잘 안되니, 분명히 근본은 되었느데 위에서는 안되니까 끊겼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런 개념이다. 그런데 이것이 통하면 그때부터 지도 바뀐것을 안다. 생각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진다 자기 위치 감각도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는데 이것이
5)흐름이다. 변화가 지속이 되어진다. 이렇게 가야 한다. 이사람은 중단안한다. 한 지역에 흐름이 바뀌려면 세월이 필요하다 그 주체는 인간이다. 최고로 말 안듣는게 인간이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더더욱 말 안듣는다. 믿는데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된다. 그러나 분명히 답은 있다. 지속하면 무조건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다 그래서 무조건 지속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디모에게 말하기를 무조건 하라는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문제는 무조건 있다 원죄가 있으니까. 복음이라는것은 그 문제를 뒤집어 버리는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믿는 자는 뭔가? 뒤집어 질때까지 안 떠나가는것이다. 믿는 증거가 뭔가? 문제가 뒤집어 질때까지 안나가. 그게 믿는것이다 믿는자의 자세이다. 결국 흐름을 뒤집어 버리는것이다. 이 흐름이 안뒤집어 지도록 하는게 사단이니 그 머리를 깨버려야 한다. 우리가 깨는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주시겠다고 약속한것이다. 스바의 장대한 인간들이 쇠고랑을 차고 온다고 했는데 누가 하겠는가?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도록해가지고 데리고 온다고 하셨다.

1.흐름을 따르는자 - 지금 흐름에 따르는 자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혼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혼자 한게 아니고 과거 부터 계속 보여주시다가 그 때에 오신것이다. 이것이 성경안에서 그리스도의 흐름이고 성경에 있는 복음의 흐름이다. 그 흐름이 사도행전 28:의 흐름이 우리한테 오는것이다. 이런 흐름속에 나의 좌표를 확인하라 과거에는 바톤을 받았다 이 성경의 흐름이 교회사에 연결이 되어 그중에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바톤을 받았다고 이 바톤을 연결한 사람이 누구냐 창 5 장에 써놓았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창 11 장셈으로부터... 마태복음에도 족보를 써놓았다. 이 사람들이 복음의 흐름의 한 이정표이다. 우리도 그런 이정표중에 한 사람이다. 그냥 목사님 선교하네 잘 다녀오세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는것이 아니다.

예) 성전을 짓는데 이름을 짓는데 진센돌프라고 하라고 헌금을 많이 한게 아니고 성전지을때 마부들에게 물을 주던 작은 아이가 왕의 꿈에 나타나서 진센돌프라고 쓰라고 하더라. 초대교회는 수많은 진센돌프들이 있었을것이다 바울만 있는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이시대에 한사람 한사람의 진센돌프이다. 잊어버리면 바보된다. 사단에게 당하게 된다. 나도 진센돌프다. 나는 리더도 못하고 뒤에 붙어서.. 진센돌프는 조그마한 어린아이이다.
1)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 복음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것이다.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아담으로 부터 나에게까지 한사람마다 복음의 흐름이다. 그중에서 이상한 사람도 있다. 확인은 안해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팔았던 사람이라고 한다. 영적인 뭔가 깨닫지 못해서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산것이다. 너무 괴씸해서 너 나가 하지 않고 한것을 은혜라고 한다. 낙심 하지말고 나도 진센돌프다라고 고백하라.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내게 까지 왔다는 그림이 있어야 한다.
2)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다 예사로 듣지 말라 여기서 흐름이 나온다. 예사로 듣는 사람은 머리에 안 남아있다 계산이 안된다. 복음과 지금 내한테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위에서 시대와 세상을 보는것이다.
3)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메시지를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포인트가 나온다.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런 단어가 들어온다. 저도 이게 잘 안들어왔다. 내 주변 다락방하면 되지 무슨 시대적이라고 다른나라까지 가냐는 생각이 있었다. 어렸던 것이다.눈이 그것밖에 안되었던것이다. 처음 부터 시대적인것 나와서 들어가쟈 마자 아.. 싶었다... 어느날 이 눈을 가지게 된것이다.
4)눈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이다. 이 기도가 흐름을 바꾼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일 청년때 눈을 떴어 ai 가 필요없다 정복이다. 진짜 우리에게 이 눈 들어오기를 바란다.나이 들어도 괜찮다 눈이 열리냐 마냐가 문제지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2.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 성경에 계속 증명하였다. 우리중에 렘넌트중에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미국에 정말로 문이 딱 열려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한것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있다. 그래서 딱 이시대에 미국을 살리는 그룹이 되어야 한다. 감사하다. 진짜. 이것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모를때는 진짜 사람이 까막눈이었다. 영적으로 까막눈 일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렇다.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서울로 이사간사람이 와서 아직도 부산에 사냐고 그러더라. 처남도 안산에 살았는데 부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 안산 부산하고 비교하고 해서 기분이 상당히 안좋았다. 문화행사 이런 저런것 이야기 하더라. 그러다가 미국을 몇번 왔다갔다 하면서 결론냈다 부산은 안된다. 한국에 돌아가서 서울에서 살지 부산은 안된다. 부산 우물안에 있으니 눈이 안여려리는것이다.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이 눈에 보이겠는가? 지도만

눈에 보이지 그게 진짜 눈에 보이겠는가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알고 눈이 열렸다. 세계라는 눈에다가 우주라는 눈에다가 정말 놀랍다. 허풍일런지 세계복음화 우주정복! 그런데 헛방이던지 말던지 속은 시원하잖은가?..... 대든지 말든지 세계복음화 하지 동네 복음화할것인가 완전 거짓말일수도 있으나 우주적 축복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고 덕인가? 사람이 가슴이 확열려야지 쪼그라지면 우울증 온다. 역사에 중심에서 남미 역사에 중심에 딱 서야 하는것이다. 미국에도 눈 열리면 미국 참 역사에 중심에 서는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것 다 하는데 이런것 잡았다고 네 웃긴다고 하시겠냐? 네가 무슨 우주를 정복하냐고 하시겠냐? 만일 그런다면 복음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면 알았다 계속해라고 하실것이다.
1)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복음안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우주보다 더 큰것이다. 우주의 그 어떤것도 이 우주보다 어떤것도 이길수 없다. 태양안에 들어가면 타지, 여하튼 하나님이 태양을 깨버리면 된다 메시지때문에,,, 메시지를 받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보는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2)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 묘하고 감사하다. 모양이나 환경이나 하나도 바뀐게 없다. 속에서 인간이 바뀐것이다. 참 놀랍다. 이 순간이 온다. 이게 계속 바뀌어서 만일 24 의 언약을 가졌다면 계속 가는것이다. 여기저기 이런 저런 다른것을 하는게 아니고 한개를 계속 깊이 들어가는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가슴이 통하는것이다.
3)하나님의 소원과 가슴이 통하는것 - 늘 하는이야기 복음과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것이 되는것이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이것이 통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것이다. 이렇게 해서
4)미국과 남미에 역사를 바꾸는것이다. 오늘 본문은 역사를 바꾸는 바울이다. 복음때문에 이런 증거를 주신다. 복음을 가졌으니 이 복음을 마게도냐에서 전하기를 원해서 바울을 그리로 보내신것이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을줄 믿는다. 나도 진센돌프다 마음에 잡기를 바란다. 나도 역사 바꿀수 있다. 내 개인 인생 역사 뒤집을수 있다 미국, 남미 역사에 끝까지 갈테니 나도 써주옵소서.

3.공통점
1)첫째는 복음이다 바울을 생각하면 된다.아주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 참 놀랍다 아무도 못따라온다. 복음을 성경적으로 바로 안다는게 지식에 불과한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이다. 베드로는 이 지식에서 못 따라 가기때문에 바울처럼 쓰임을 받지 못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 발라도 굉장한 힘을 얻게 된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것은 굉장한 힘이다. 그냥 예를 들어 메시지 하나 전하면 중요한 단어를 뽑아서 메시지만 잘할수 있어도 대단한것이다. 바른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 할수 있다면 아주 대단한것이다. 바울은 이것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것이다. 선택을 했기에 쓰임을 받은것이다. 그게 더 정확할수있다. 아무튼 성경적인 전도에 쓰임받았다 여기에 해야 할 사명
2)사명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실일이다. 항상 주시는것이 있다.
3)깊은 기도의 비밀이다. -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의 비밀이다. 그래야 1-2 번을 계속 할수 있고 지속할수있다. 깊은 기도에서 근원적인 힘이 나온다. 1 번 2 번에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육신적으로 씨름 팔씨름 아무리 잘해도 영적인것에는 아무필요없다. 영적인 힘이 필요해서 기도가 필요한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ab, a-기도가 50 b-기도가 80 이면 a 는 절대 비를 넘어설 수 없다.
4)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은 망대를 세울 수있다. 위에 두가지 가 있으면 절대 중단안한다. 뜻을 딱 정했다. 계속 아이디어가 나온다. 항상 힘을 얻는다. 놀라운 일이다.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다. 답이기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려움은 지금도 있을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신다. 누구나 이런 인생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지 20-30 년 지나왔다 왜 이리 오래걸리나 볼 수있다 그만큼 인간이 지독하다는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이 있다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나날이 내 마음과 생각이 다라지고 있다. 분명한것은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 하나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사단에게 져버리면 다 이겨도 필요가 없는것이다. 이런 언약들이 있기때문에 오늘도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역전하고 우리 인생의 흐름이 계속 바뀌어서 성경과 같게 될줄 믿는다.

4.결론
1)세상에 역사를 이끄는것은 복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 안할런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한다.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흐름만 바꾼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모세로 인하여 그의 기도와 언약의 주변 나라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 가나안땅은 말할것도 없이 뒤집었다 요셉은 애굽을 완전히 뒤집어다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 생각에는 인간반 짐승반 다 죽었을것이다. 아니면 인간, 짐승 전체가 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 지역 전체에 기근이 왔기에 피해가지도 못한다. 그러나 요셉때문에 오히려 더 부강한 나라가 된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복음가진 자를 따라간다. 모세의 기간이 길었다. 모세도 사역을 40 년했다. 바울도 오랫동안 사역했으나 250 년 만에 증거가 나왔다 지금도 같은 원리이다. 여하튼 낙심하지 말고 언약잡고 새출발하시라.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복음이 증거가 다 끝났는데 인간의 힘으로 지구를 연장시키는것은 불가능하다. 해가 안뜨는데 인간이 무슨짓을 해? 안믿는 사람들 올 지옥인데,, 그래서
2)기준은 복음이다. 이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말이다. 나의 복음만큼 내가 나의 인생을 정복한다. 바울이 나의복음이라는 단어를 썻는데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누린 복음만큼 나의 인생이, 이 복음이 진짜 답내면 진짜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3)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흐름을 바꿀수 있다. 제자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속적으로 계속 제자만 세우면 역사가 바뀐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저도현장에 표준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기에 하나님이 이시대에 복음을 주셧다는것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앞에 중대한 선언을 받았다 내 말은 절대로 되돌아 오는 법이 없다.나는 내 말을 절대로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한번 나갔다면 거기서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다.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
하나님 귀중한 말씀이 언약되기를 바라며 개인 언약을 통해
미국과 남미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과, 우주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